

명품 시금치 '신안 섬초' 연중 맛본다

여름 노지재배 성공 1년내내 생산 가능 수확량 겨울 2배...올 5800평 규모 재배

신안 비금·도초지역 대표적 시금치 브랜드인 '신안 섬초'를 연중 맛볼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1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주로 겨울철에만 생산해 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여름철 노지재배에 성공, 연중 생산기반을 구축했다.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진흥청 국립 원예과학원은 공동으로 지난해부터 연중 재배에 적합한 '신안섬초' 우수 적응품종을 선발하고, 재배법을 개선하는 등 시금치 연중생산 기반 구축에 나섰다.

군은 지난 5월 노지에 파종해 35일 만인 지난 6월 20일부터 여름 시금치를 생산, 서울과 광주 농산물 도매시장 등지로 출하를 시작했다. 파종작업 역시 인력파종이 아닌 기계파종으로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신안 여름 시금치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타지역 시금치와 달리 싱싱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맛과 향이 겨울 시금치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확량도 겨울철보다 2배 정도 많다. 신안지역 여름 시금치는 7월 상순까지 수확할 수 있다.

또한 8월부터는 장마기에도 안전하게 고품질 시금치를 재배할 수 있는 비가림 하우스에서 시금치재배생산한다. 올해 100평 규모 58동에서 재배할 예정이다.

현재 여름철 시금치는 3kg 1박스당

대량 5000원 선에 판매되고 있으나 1만200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겨울철 시금치는 3kg 1박스에 9000원선이다.

하지만 여름철 시금치 운송비는 겨울철보다 많이 소요된다. 겨울철 시금치는 대량으로 대형차로 운송해 박스당 물류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여름철 시금치는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냉동 탭차를 이용해 소규모 운송하기 때문이다.

신안섬초 권관배(66) 대표이사는 "비가림 하우스에서 생산된 시금치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8월부터 가격상승이 예상된다"며 "연중생산 기반구축과 함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조진언 담당은 "무농약 시금치 생산과 소포장재 개발 보급, 1일 출하량을 감안한 단계별 파종과 계획 출하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섬초'는 해풍을 받은 계리마늘 토양에서 자라 비타민·철분·칼슘 등이 풍부해 맛과 향이 뛰어난 데다, 잎과 줄기가 두터워 저장성이 뛰어나다. 지난 2010년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 타지역산에 비해 식이섬유가 적어 부드럽고, 계리마늘 함량이 높아 식품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취재본부=조완기기자 wncho@



최근 신안 비금도 주민들이 노지에서 재배한 '신안 섬초'를 수확하고 있다.

■ 세 일 글

“배려·화합하는 의회 만들겠다”

양 규모 합평군의회 의장

“합평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최근 합평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재선된 양규모(70) 의원은 “군민과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화합하는 의회,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 군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겠다”고 강조했다. 초선인 양 의장은 목포 과학대(사회복지과)를 졸업했으며 농협에서 28년간 근무하고 제6대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희기자 hwang@

태풍 대비 작지만 섬세한 감동행정

목포시 광고탑·플래카드 동여매 훼손 한 건도 없어

목포시의 작지만, 섬세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목포시 건설과는 지난 18일 제7호 태풍 '카눈'의 상륙에 대비, 전 직원을 동원해 옥외용 광고 선전탑과 옥교에 게시된 플래카드를 전부 동여매었다. (사진)

현재 관내에는 일반용 57개소와 행정용 5개소 등 모두 62개소의 광고 선전탑이 설치돼 있으며, 옥교도 22곳에 이른다.

이곳에 게시된 플래카드는 모두 500여장. 건설과는 광고물협회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3개 조로 나눠 10시간에 걸쳐 이들을 모두 동여매는 봉사행정을 펼쳤다. 이번 조치로 19일 새벽 목포지역에 강풍이 불었지만 단 한 장의 플래카드도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동 시 도시건설국장은 “매년 태풍이 올 때마다 강풍에 플래카드가 찢기고, 떨어져 나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적잖은 재산상의 손실도 발생했다”며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시민들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숙기자 lyc@

무안 초·중생 32명

중칭화대 체험학습 갑니다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석원)은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8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중국 칭화대(淸華大)에서 현지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무안교육청은 최근 목포대 인문관 여학생숙소에서 관내 초·중·고교장 추천학생 43명을 대상으로 중국어 듣기와 말하기 평가 등을 거쳐 29명(초등학생 19명·중학생 10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에는 지난 겨울 방학중에 실시한 중국 문화체험 캠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3명도 동행한다.

무안교육청은 중국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중국문화 체험캠프 ▲중국현지 체험학습 ▲중국 어학

연수 ▲방학을 이용한 중국어 집중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무안지역에서는 초등 18개교, 중등 9개교 등 27개 학교가 '방과후 학교 중국어 회화반'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중국과전 중국어 원어민 강사 13명과 내국인강사 17명이 관내 전체 초·중학교를 순회하면서 역할교 형식의 중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등 새로운 교육모형을 만들어 가고 있다.

박석원 교육장은 “올 겨울에는 중국 국제학교에서 초·중학생을 위한 어학연수와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전남 서남권 주민들

해남 화력 재유치 반발

전남 서남권 주민들이 해남 화력발전소 재유치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해남 화력발전소 건립반대 서남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서남권대책위)는 19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남 화력발전소 유치는 지난 5월 7일 해남군의회의 진지한 검토와 함께 표결 끝에 유치동의안이 부결돼 일단락된 사항”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없는 문제다”고 밝혔다.

이어 “과정과 결과가 이러한데도 다시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해남군민 나아가 서남권의 주민들을 다시 한번 반복과 갈등의 수렁에 빠트리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전 북

군산시 교통신호체계 연동화 전면시행

군산시는 20일부터 공판대로 등 15개 주요 도로축에 대해 교통신호 연동화(DB구축) 개편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공간의 활성화, 도시의 팽창으로 꾸준히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있어 신호연동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교통신호화 모델도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비지원 사업으로 군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전문 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시는 주요 도로구간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대와 낮 시간대로 나눠 교통량 및 주행속도를 조사 분석한 후 신호연동 체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차량의 교차로 대기시간 감소, 도로구간의 원활한 교통 소통, 주행속도 향상 등 운전자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차량 흐름에 맞는 교통신호 체계를 구축해 운행시간 단축과 대기비용 절감뿐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에도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지난 18일 개장한 고창 한우 가축시장은 전자경매 시스템을 갖추고 하루 204마리까지 거래할 수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 흥덕에 한우시장 개장

전자경매 시스템 갖춰 하루 240마리까지 거래

고창군 흥덕면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한우가축시장이 문을 열었다.

고창부안축협(조합장 김사중)은 총사업비 10억1600만원을 들여 지난 18일 고창군 흥덕면 용반리에 최첨단 전자경매 시스템을 갖춘 가축시장을 개장하고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한우 가축시장은 부지 7600㎡에 1층 규모(1020㎡)로, 전자경매 시스템을 갖춰 송아지와 비육우 등을 하루 최대 204마리까지 거래할 수 있다. 소독시설과 식당 및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도 갖췄다.

한우 가축시장은 특히 최첨단 전자경매를 도입해 출하번호·출하주인·

성별·내장가격·소품종 등 거래 한우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이강주 군수는 “가축시장은 서해안 고속도로, 고창~담양 고속도로와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전자경매 가축시장이 한우 거래 질서의 확립, 한우 유통보존, 품질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단 신

전북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60% 지원

전북도는 멧돼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한다.

피해 예방시설은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한 전기 충격식 울타리와 방조망, 철망 울타리 등

으로 설치 비용 가운데 60%를 지원하고, 나머지(4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4억원을 들여 야생동물 피해농가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고구마밭, 과수원, 복분자 농장 등에 설치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남원시 주생면 멜론단지 시설 조속 마무리

남원시는 주생면 멜론단지 시설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환주 시장은 19일 주생면 멜론 작목반을 찾아 '이동 시장실'을 열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시장은 농민들의 적기 급수를 위한 관정시설 확충과 연작피

해 방지대책 지원에 대해 “연차별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한 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올해 주생면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난해 사업부지 매입과 성토작업을 마쳤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김제시 보건소 하절기 식중독 예방교육

김제시 보건소(소장 이병철)는 지난 17일 보건소총 회의실에서 50인 이하 어린이집 사회 복지시설 대표자와 조리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하절기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대장균 오염도 측정기를 활용해 회·식육·감발 등

식재료의 식중독 발생원인을 분석, 영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이병철 소장은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해 이례도 수준을 향상시켜 7년연속 식중독 없는 건강한 김제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순창군-서울대 사회연구소 노후 건강교육

순창군과 서울대 노화고령 사회연구소는 지난달 ‘골드 룩’ 과정에 이어 17일부터 20일까지 미니 매드스쿨 과정 교육을 펼쳤다.

이번 교육은 서울·대구 등 전국에서 온 73명을 대상으로 신청기초건강 교육 및 과학적인 의학상식을 전달해 노후에 발생하기 쉬운 성인병에 대한 사전 이해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

이다.

이번 교육은 ▲늙지 않는 피부, 젊어지는 피부(서울대병원 정진호 피부과 전문의) ▲나의 치아로 100세까지(전북대 장기완 치과 전문의) ▲언제나 튼튼한 관절과 근육(서울대병원 정선근 재활의학과 전문의) 등 심도깊은 강의중심으로 진행된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전북도교육청, 교장공모제 임용후보자 9명 선정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공모제 운영 학교 교장 임용추천 후보자 9명을 선정했다.

이번 교장 공모제에는 초등학교 6개교·중학교 1개교·고등학교 1개교·특수학교 1개교가 선정됐다.

1차 심사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2차 심사는 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에서 공모교장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주관했다.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공모심사위원회의 추천순위를 고려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교장공모제 운영학교 및 공모교장 임용추천후보자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구암초 조중근(교감), 비안초 조순길(교감), 남원초 조내화(교감), 장계초 이정섭(교감), 공음초 정준영(교감), 수곡초 전수환(교감)

▲중등학교=고창 대성중 김길호(교감), 줄포자동자 공업고 윤홍진(교감), 군산 명화학교 한두현(교장)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 시립교향악단 힐링콘서트

군산 시립교향악단은 20일 저녁 7시 30분 시민문화회관에서 기획 연주회로 '섬진강 시인 김용택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소프라노 오민춘, 바리톤 이승범, 테너 이진배

등이 출연해 오페라 잔니스키기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외 다수의 곡을 선보인다. 또 김용택 시인의 서정적인 시 낭독과 대담도 마련된다.

공연관람은 무료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